

보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속도 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 받아



보성군은 지난 6일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보성 갯벌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이번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와 소날리 고

쉬(Sonali Ghosh)가 담당했다. 실사자들은 벌교갯벌의 주산지인 장도를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하였다. 특히, 관계자들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뽕배어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갯벌 신청 유산 중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보성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보성갯벌은 장도를 중심으로 20개의 섬이 반폐쇄형 갯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운 입자의 팔갯벌이 형성돼 벌교갯벌의 주산지이자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해 생태·생물학적 가치가 크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2019년 팔마문화제 개최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천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청령, 애민, 배려를 기본으로 팔마 정신을 계승하는 '2019순천팔마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팔마문화제는 예년과 다르게 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의 주제로 팔마 기본정신을 찾는 순천형 인문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최석 부사 환생의 거리행렬', '관내 25개 공공기관 청렴협약식', '연극 팔마에게 길을 묻다', '팔마토크쇼', '팔마퀴즈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렴협약식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5개 기관단체가 최석 부사의 청렴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진행된다. 또한 한옥극장, 문

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신대회관 등 순천시 전역에서 팔마정신 찾기 문화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시민들 모두가 기억하는 순천 팔마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순천시가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팔마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팔마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제 형식의 팔마문화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낮달 산책투어' 운영한다

이순신광장·선소 2개 코스 운영...12월 7일까지

여수시가 이순신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인 '낮달 산책투어'를 오는 12월 7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낮달 산책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순신 유적지를 산책하며 국악 버스킹과 스탬프 투어, 서책 만들기 등을 즐기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20명을 대상

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개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는 이순신광장 안내소 집결~전라좌수영성-진남관~매영정~고소대~달빛갤러리~오포대~천사벽화골목이다. 2코스는 선소 안내소 앞 집결~장도입구~이순신공원~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이다.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 관광문화



홈페이지(www.yeosu.go.kr/tour)에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연인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초보농부 영농현장 팸 투어' 성황

담양군이 지난 11일부터 1박 2일 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7기 초보농부 영농현장 팸 투어'가 성황리에 끝났다.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교육원에서 진행한 이번 팸 투어는 사전답사 여행이라는 의미처럼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업·농촌을 체험하게 하고 지역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단감으로 유명한 시

목마을에서 단감수확체험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명옥헌원림과 소쇄원 등 지역문화 탐방, 선배 귀농인 이야기 청취, 현장견학, 천연염색 체험, 유기농 채소 수확체험 등을 하며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정취를 경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교육 내용이 알차고, 담양과 농촌을 보다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혼자 알기 아까워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시, 흥역 감염 각별한 주의 당부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해외여행력이 있는 흥역환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명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흥역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흥역 첫 발생 이후 9월까지 총 188명이 신고되었다.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 유입사례였으며, 우리시는 흥역 확진자가 없다.

흥역 유행 지역을 여행하기 전에는 면역증거가 없다면 흥역 예방접종을 출국 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하며, 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후에는 흥역 잠복기(7-21일)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광양=김승호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문화주간 다채로운 행사 마련

개관 2주년 기념...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분청사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와 우수성을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청문화주간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 운대리는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가 생산된 도자문화의 보고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었고, 지난 2017년 10월 31일에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번 '분청문화주간'에는 분청사기를 중심 테마로 친근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박물관 일원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10월 30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21시까지 박물관 특별 야간 개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그동안 운대리 분청사기의 발굴된 출토유물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 '고흥 분청사기, 탐방에 몰입' 개막식과 함께 '제2회 분청사기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운대리 분청 분청사기'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운대리 분청기법(담방기법)의 학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 날, 2일에는 박물관을 찾

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작가 시연회, 전통 물레 체험, 분청사기 컵 그리기 등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분청문화박물관의 개관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주간 행사는 운대리 분청사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모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힐링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분청문화박물관은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